

핏빛 짙어진 리비아...국제사회 강경선호

수도 트리폴리, 친정부 무차별 학살로 '피바다' 각국 자국민 구출 안간힘...유럽 무기거래 중단

내전 양상으로 불거진 리비아 유혈사태의 핏빛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리비아 동부지역에는 리비아 정부의 영향력이 사실상 미치지 않게 됐지만 산발적인 폭력사태가 끊이지 않고 있고, 수도 트리폴리를 비롯한 서부지역에서는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를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 무차별 학살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리비아에 대한 대응도 점점 강경 쪽으로 기울어 가는 모습이다.

◇동부지역 반정부세력 손에...트리폴리는 '피바다' = 24일 AP와 AFP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반정부세력은 현재 이집트 인접 국경에서부터 토브루크와 2대 도시 뱅가지 등 동부 해안의 키레나이카 지방을 장악했으며, 튀니지 국경 근처 즈와라 역시 반정부 시위대의 통제 하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리비아 3대 도시 미스라타도 이날 시위대의 수중에 들어갔다.

이들 지역에서는 군도 시위대 지지를 선언하며 카다피에게 등을 돌렸으며 반정부 세력은 자체적으로 지방정부를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다피는 사실상 동부 지역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한 셈이 됐지만, 이 지역에서의 폭력사태와 혼란 양상은 여전하다. 일부 목격자들은 카다피 추종자들이 미스라타에서 시위대를 향해 로켓탄을 발사해 민간인 여러 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수도 트리폴리 일대의 폭력 수위는 극에 달했다. 22일부터 전날까지 수도 트리폴리를 빠져나온 이들은 외신들을 통해 트리폴리 부근에서 전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무차별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 각국, 자국민 구출에 안간힘 = 리비아의 상황이 악화 일로를 치닫자 세계 각국은 리비아에 머물던 자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터키는 전날 선박 두 척을 급파해 자국민 3000명을 귀국시켰고, 미국도 600명 정원의 전세 페리를 동원해 리비아 인근 몰타로 미

국인들을 피신시켰다. 프랑스는 공군기 3대를 트리폴리로 급파했으며, 영국은 전세기와 함께 해상 소개에 대비해 프리깃함 컴벌랜드호를 리비아 해역에 배치했다.

◇국제사회, 리비아 문제 '강경' 기울어 = 리비아 사태 초기 다소 미온적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던 주요 국가들의 대응이 점차 강경 쪽으로 선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무장관은 23일 BBC와의 회견에서 리비아에 고립된 자국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설정해 놓

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며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리비아의 반정부 시위대 폭력진압은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유혈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위해 오는 28일 클린턴 국무장관을 스위스 제네바로 급파하겠다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잔혹행위의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고, 유럽연합(EU)은 리비아와의 무기 거래를 중단했다.



리비아의 상황이 악화 일로로 치닫자 세계 각국은 리비아에 머물던 자국민들을 구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23일 리비아에 머물던 터키인들이 자국에서 급파한 선박을 타고 지중해의 마르마리스항구에 도착, 하선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역사문제는 ‘독도’”

국민 40% 응답...中 역사왜곡·일본군 위안부 順

3·1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우리나라 성인 40% 가량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역사적 현안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꼽았다.

24일 취입포털 스카우트와 옹진생크빅이 성인남녀 63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한·중·일 3국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역사적 현안'에 대해 응답자의 40.7%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중국의 역사 왜곡'(33%),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17.6%), '일본 야스쿠니 신사 참배'(7.5%)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한편 역사 지식을 얻는 경로에 대해 가장 많은 36.3%가 '서적'이라고 답했으며 '사극'(23.1%), '인터넷'(18.7%), '신문이나 잡지'(11%)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국방부, 예비군부대 저격수 3만명 양성

국방부가 올해부터 예비군부대 저격수 양성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4일 '2011년부터 달라지는 예비군훈련' 자료를 통해 "북한의 특수전부대와 시가지 전투에 대비한 예비군부대 저격수 양성 훈련을 하기로 했다"며 "항방 및 타격소대별로 1명씩을 선발해 훈련기간 동안 4시간을 사격연습에 투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예비군 저격수는 확대경이 장착된 M16A1 소총으로 사격 연습을 하며 군은 3만여명의 저격수를 지속적으로 양성 유지할 계획이다. 또 5~6년차 동원예비군은 그간 사흘간 출퇴근하며 훈련했으나 올해부터는 1박2일

간 입영훈련을 육군 5개 사단에서 시험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원보충대대 예비군 가운데 일부는 전방으로 전개해 전투력 복원훈련을 하게 될 것"이라며 "동원훈련에 불참할 경우 재입영 훈련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는 올해부터 생계보장 차원에서 예비군 훈련을 면제키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확인서를 관할 예비군중대에 제출하면 된다. 면제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4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시흥시 “1만부 이상 발행 광고 우선 배정”

경기도 시흥시는 발행부수 1만부 이상(경기지역 발송부수 5천부 이상) 언론사에 행정공고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그러나 발행부수가 공개되지 않은 지역언론사(주간지·인터넷신문)의 경우 특수성을 감안해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그동안 무분별하게 관행적으로 이뤄진 신문 구독도 조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브리핑룸 운영 개선안 등이 담긴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교민 수송용 전세기 투입·원유 수급 대비”

정부 긴급 관계장관회의

정부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동사태 상황점검·대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동 사태' 관련 대책은 교민 안전, 유가 안정, 현지 진출 기업 및 건설 시장 피해 최소화에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교민과 진출기업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전세계로 교민 수송 = 가장 중요한 교

민 안전 대책과 관련해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는 리비아 트리폴리 교민 260명을 국내로 수송하기 위해 이집트항공 전세기를 급파했다. 정부는 철수를 원하는 교민수가 탑승 가능 인원보다 많을 경우 계속해서 전세기를 투입키로 했다.

동부 지역의 뱅가지에서도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께 항공기를 출발하는 터키 선박에 교민 50여명이 승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현재 뱅가지에 남아있는 교민 200여명을 대상으로 철수 의사를 계속 파악 중이지만 일부 건설업체의 필수 인력 50명가

량은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근로자 안전확보 총력 = 국토부는 우리 건설업체 근로자들의 피해 현황 및 대피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고했다.

보고에 따르면 리비아 반정부 시위로 인해 동북부 뱅가지 지역에서 원건설(데르나), 현대건설, 한미파슨스(이상 뱅가지) 등 3개 현장, 트리폴리 인근 신한건설, 이수건설, ANC 등 5개 현장에서 차량·기차제 탈취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현재 리비아 및 이집트 대사관 등과 연계해 근로자 대피를 돕고 있으며 현

재 리비아에 근무하는 24개사의 한국 근로자 1342명 가운데 24일 현재 원건설 직원 등 90여명이 육로를 통해 이집트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유 수급 철저 대비 = 지식경제부는 비축유 긴급 방출, 민간 비축유 완화, 대체 원유수입선 모색 등 석유수급 차질시 대응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특히 리비아 사태가 이란과 사우디 등 걸프만 연안국으로 확산하는지 동향을 주시하면서 수급에 실제로 차질이 빚어질 때를 가짐해 비축유 방출 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다만 비축유 방출이 최후의 카드라는 점에서 민간 석유업체들의 비축유 일수를 현행 40일에서 30일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더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北 “중동발 민주화 바람 차단” 내부단속

튀니지에서 시작해 이집트, 리비아까지 이어진 중동발 민주화 바람 차단을 위해 북한이 본격적인 내부단속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상환에 정통한 소식통은 24일 "북한이 최근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강화하고 외부정보 유입의 차단을 강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또 "고위층 등의 출국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상층부가 중동의 민주화 운동 도미노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북한으로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중동 민주화 운동이 30년간 철권통치를 해온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을 권좌에서 몰아내고 북한의 '알마당'인 중국에 까지 영향을 미치자 북한이 상당히 위기감을 느낀 데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23일 "북한 권력 핵심부는 관련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런 관점에서 체제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당연히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과 일맥상 통한다. 소식통은 "중동 민주화 바람이 북한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으며 변화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과도한 업무, 무한 경쟁압박, 쌓이는 스트레스로 인한 과로, 잦은 과음으로 지치고 힘든 나의 간- 이제, 사랑이 필요합니다!

미래의 성공한 인생과 행복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한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하며,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간장질환은 우리나라 국민 전체 사망 원인 중 5위를 차지하고, 특히 40대에서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간장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만성 간장질환자의 60~70%가 바이러스성 간염과 관련 되어 있으나, 알코올이나 약물, 비만 등도 간장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잦은 음주로 인한 알콜성 간장질환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보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국제약품이 함께합니다.

간장보호기능 생약성분 및 비타민 복합제

리버비타 연질캡슐

손상된 간세포와 간조직을 재생하는- Carduus Marianus Extract가 함유된 만성 간질환, 독성 간질환 보조 치료제

*기타 제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제약품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람동 513-2, 2-1/아케빌 TEL: 031-781-9080)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광고심의필: 1091-0300